

## “가로수에 기대지 마세요, 농약 썼어요”

광주 5개 자치구, 발암의심물질 포함 23종 다량 살포

광주 도심거리의 느티나무·이팝나무에 농약이 다량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성이 있는 농약뿐만 아니라 가로수 방제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광주시 각 자치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5개 구가 최근 1년6개월간 금남구·북문로·경일로 등 주요 도로 가로수에 로멕틴·어드마이어 등 23개 종류의 농약을 살포했다.

어드마이어 살충제는 어독성(수생생물에 미치는 독성) 3급으로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의심돼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로멕틴은 수생생물에 유해한 어독성 1급 농약이다. 저수지와 상수원 등에 유입되거나 빗물에 씻겨 흘러들어갈 경우, 수생생물을 중독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느티나무·이팝나무 등에 농약관리법까지 위반하며 새벽 4~6시에 뿌려

남구의 로멕틴 사용량은 1700㎖이며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535㎖, 1280㎖를 사용했다. 남구는 또 다른 어독성 1급 강타자를 8000㎖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와 광산구는 수목대상이 아닌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스미사이딘 2500㎖를, 광산구는 주유 8125㎖를 사용했다. 동구는 지난 14일 발암의심물질인 베노밀수화제와 기타 독성물질인 만코지 등을 사용했다고 밝힌 뒤 다음날 “2년 전부터 사용을 한 적이 없다”고 반복했다. 특히, 이들 자치구는 농약관리법까지

■ 광주 자치구별 농약살포 실태 (2013년~2014년 상반기)

종류	위험정도	사용량	구별 가로수
어드마이어	어독성 3급 (꿀벌폐사 주범)	5개 구청 모두 사용	
로멕틴	어독성 1급 (수생생물에 치명적)	남구 1700㎖ 북구 535㎖ 광산구 1280㎖	동구 7종 8699그루 서구 20종 3만0296그루 남구 10종 1만3425그루 북구 15종 3만3524그루 광산구 16종 5만3008그루
강타자	어독성 1급	남구 8000㎖	
스미사이딘	수목에 사용불가	북구 2500㎖	
주유	“	광산구 8125㎖	
베노밀	발암의심물질	동구 “사용했다” 자료제출 후 “2년 전부터 사용안해”	
만코지	기타 독성물질	입장 반복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관리법(제19조)에는 농약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자치구가 사용한 농약의 살포 대상에는 느티나무·이팝나무 등 가로수가 들어 있지 않다. 농약 사용을 관리

해야 할 자치구가 오히려 앞장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가로수 방제에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는 것은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편리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 자치구별 가로수는 ▲동구 7종 8699그루 ▲서구 20종 3만296그루 ▲남구 10종 1만3425그루 ▲북구 15종 3만3524그루 ▲광산구 16종 5

만3008그루다.

가로수에 농약이 다량 살포되면서 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농약의 유해성분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과잉 살포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주민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가로수 방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목초제 등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농약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는 농약 사용횟수가 1년에 3~5번으로 많지 않고, 병해충이 발생한 가로수에 대해서만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 살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농약인 점을 감안) 주로 새벽 4~6시 사이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박기웅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교육부장관 후보

김명수 철회  
황우여 내정

靑 인사수석에 정진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사진)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중섭 안전행정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발기에 들어가야 야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은 이날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는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정진철 대전북지재단 대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자격없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호남風’ 일으켜 수도권 승리 노린다

새정치 지도부 대거 광주·전남행 ‘텃밭 다지기’

“권은희 개혁공천” 강조 ... 與 집중포화 차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7·30 재·보궐선거 공천선거기간을 이틀 앞둔 15일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바람몰이해 나갔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각종 변수로 인해 호남표의 동향이 전체 선거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광주 광산(乙) 후보로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수사경찰서 과장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과 새누리당의 집중 포화가 수도권 등 다른 재보선 지역으로까지 불뚱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열리는 권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권 후보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이 결국 새정치연합 공천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느냐는 보수층의 비판론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 오히려 ‘새정치’의 가치에 부합하는 개혁 공천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순천·곡성 서갑원 후보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탤다.

이날 서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는 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 양승



“필승”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15일 수완동에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왼쪽부터 이근우 광주시당공동위원장, 박지원 전 원내대표, 권 후보, 김한길 공동대표, 주승용 사무총장, 김동철 의원.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조 최고위원, 주승용 사무총장,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 추미애·김태년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인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맞대결을 벌이는데다 야권 분열로 낙승을 장담하기 어려워 지도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상징적 승부수는 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큰 점도 순전을 찾은 이유로 분석된다.

안 대표는 이날 텃밭 다지기에 이어 저녁 서울 동작을 기동한 후보의 선거운동 자리에도 동참하는 등 최대 승부처인 수도

권 공략에도 시동을 건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가 두 번이니까 나눠서 효과적으로 지원활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수원은 김 대표가, 동작은 안 대표가 각각 주로 맡아서 활동하되 수도권 전체가 중요한 만큼 모든 지역을 서로서로 다 신경쓰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동작을에 우원식 최고위원과 유은혜 진성준 의원을, 수원 을·병·정에 김태년·송호창·이찬열 의원과 김진표 전 의원을 각각 참여시키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30 재보선 누가 뛰나  
- 나주·화순 ▶3번  
민선6기 단체장에 듣는다  
- 안병호 함평군수 ▶11번

‘건강낙원’ 축령산 편백숲 ▶18번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독거노인 무료개안  
수술을 위한 자전거투어  
8월 4일(월)~5일(화) 062)605-1128  
광신대학교

**위장병, 반복할 것인가?**

**카베진으로 회복할 것인가!**

**지루지루 반복되는 위장병!**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에 오해 내내 별다른 처방과도 답답함, 신트림 등... 위장병은 왜 반복될까요?

**문제는 바로 위장막!**  
손상된 위장막은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은 위장막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유래 성분 MMSC의 위장막 회복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은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위장막을 회복시키고 위장병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MMSC(메틸메티오닌)는 포도당화합물인가?  
양배추 추출물의 황소화합물인 S-메틸메티오닌이라고도 불리며, 위장막 수복 효과와 긴 장에 대한 개선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Jpn Pharmacol Ther(약리와 치료) 35(1), 41-49(2007)

**지루지루한 위장병을 개선시키는 4가지 효과! 새로 나온 카베진코와 S정**

- MMSC 성분으로 위장막 회복 효과
- 재산성분 배합으로 위산 자극 완화 효과
- 침출건조엑스 함유 위 운동 촉진 효과
- 리파제 AP12의 소화 작용 촉진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의 2중정 작용**  
오존과 핵종의 2중정제 순차적으로 분해되어 각 성분이 위장병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복산제 성분의 위통, 속쓰림, 신트림, 구역,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 완화 + MMSC의 위장막 회복

위장병을 회복할 땐  
**카베진코와 S**